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역자 다짐

2017년도 상반기 계절학기



설교 목대원장 임종달 목사

2017년도 상반기 계절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7월 10일(월) 오전 11시 총회 신학원 3층 강의실에서 드려져 더위 속에서도 학구열에 불타는 목회대학원생들이 모여 교단 중진 목회자들로 부터 집중적인 신학교육을 받기 위해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예배는 교단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목대원 교수 최병진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 목회대학원장 임종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롬 5:1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람'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믿는 사람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한 사람의 중요함을 깨닫고 변화된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비튼 발걸음으로 나갈 때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 감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좇아 행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목대원생들을 축복했다. 이어 윤기석 목사의 광고, 임종달 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 후 교단 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특강 '하나님의 성회 교리신조'를 시작으로 조원재 교수의 '목회실천에 관한 연구', 최병진 교수의 '계시록 연구', 김용덕 교수의 '요순절 조직신학 연구', 신재영 교수의 '중생과 성령세례에 관한 바른 이해 연구', 이용주 교수의 '목회원리와 실제에 관한 연구', 강태진 교수의 '목회상담학 연구'가 13일(목)까지 3박 4일간 집중적으로 계속되어 큰 깨달음을 얻고 헌신의 각오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특강 대표기도 사회
교단 총회장 김양인 목사 목대원 교수 최병진 목사 목대원사무국장 윤기석 목사



여름철 각종 수련회 및 기도회 점검

66차 총회 제3회 임원회

교단 66차 총회 제3회 임원회가 지난 17일(월) 오전 11시 은혜와평화교회(담임 엄기설 목사)에서 열려 여름철 수련회 및 기도회를 앞두고 각종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엄기설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차흥식 목사의 기도, 부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막 9:14-29 말씀을 본문으로 '주여 우리

리는 왜 안됩니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믿음의 기도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강조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부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이어서 회의는 서기 차흥식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인 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개회선언 후 보고사항으로 총무보고에서 엄기설 목사는 고사위원장, 목대원 중앙예배, 계절학기, 기독교교단협 군부대 위문, 청소년

연합수련회, 전국신학생연합수련회 등의 교단업무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회계보고로 재무 박정진 목사의 교단발전기금 납부현황, 수입보고, 회계 운영사항의 지출보고가 있었다.

각종 청원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복귀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폐쇄 청원, 교역자유직 청원, 교역자은퇴 청원, 선교사가입 청원 등의 사항이 보고 및 결의되었다. 이어 임기만료된 각 위원장, 각 국장들을 추천하고 실행위원회에서 인준반도록 했다.



'행복의 이유'



조용목 목사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 144:15)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행복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행복의 이유들을 알지 못하여 행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인식의 깊이에 있습니다. 이해하고 깨닫고 느끼는 정도가 약하면 마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갖게 되는 행복의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신론자가 되거나 불가지론자가 되거나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신을 믿고 섬기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훼방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외에는 달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에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마음을 열어 알게 하여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비로소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극히 고귀한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변화와 영화는 지극하여 이 세상에서는 충분히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한 몸을 받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까지 다만 상상으로 즐기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영광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신비

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셋째는, 복음이 계시된 성경을 가진 것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복음을 일괄 가지로 분류하면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권능의 복음, 치료의 복음, 천국 복음, 재림의 복음,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물이 존제하게 된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인간간의 타락과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배울 수 있는 것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이를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얼마나 구하든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자신과 이웃을 위한 온갖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이 네 가지 행복의 이유들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적극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은혜와평화교회 260mm 폭우에 하수구 역류

성전, 사무실, 식당 발목까지 잠겨 큰 어려움

부산지교회(회장 조병희 목사) 은혜와평화교회(부산 영도구 동상로 69번길 45, 담임 한명정 목사)는 최근 부산 영도지역에 쏟아 내린 260mm의 폭우로 인해 하수구가 역류하여 빗물과 함께 토사가 성전과 사무실, 식당 등에 발목까지 차오르는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번 비 피해는 장맛비와 더불어 제3호 태풍 난마돌의 간접영향권에 든 부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사상최초의 집중호우가 내려 인근 도로가 침수되고 벽이 붕괴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비로 침수피해를 입은 은혜와평화교회는 빗물이 방수이 넘어 들어와 손 쓸 틈도 없이 성전, 사무실, 식당에 발목을 훌쩍 넘는 높이의 빗물이 넘쳐 도배, 장판은 모두 뜯어 내야할 상황이며 전자제품들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랫동안 극심한 가뭄 이후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 교회에 사랑의 마음을 나누게 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후원 문의 02)2677-9935 목양신문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홈페이지 : www.ucts.org

AG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여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여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한교연, 6-5차 긴급임원회 개최

한기총과 통합·종교인 과세 대책 등 중점 논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지난 7월 7일(금) 오전 11시 제6-5차 임원회를 한교연 회의실에서 갖고 한국교회의 통합에 관한 긴급 현안과 종교인 과세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긴급 현안에 따른 임원으로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교회 통합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점검하고 일단 한기총의 8월 임시총회까지 기다리되 민일 한기총과의 통합이 바람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본회와 교단장회와의 속한 교단들을 포함하여 한국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하도록 정서영 대표회장과 통합추진위원장 고시영 목사에게 위임했다.

임원회에서는 또한 기제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종단 대표들을 불러 마련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간담회 결과가 보고되었다. 종교인 과세 대책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보고를 통해 “지금까지 교계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다수 내포된 종교인 과세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한



국교회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것은 물론 종교계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임원들은 목회자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존폐가 걸린 심각한 현안에 대해 한교연이 7대 종단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기도록 대표회장과 종교인 과세 대책위원장 권태진 목사에게 위임했다.

임원회는 또한 한기총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는 모 인사가 주최한 신전지 이만희 초청 포럼에 한교연에 속한 일부 교단의 인사들도 참석한 것과 관련하여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 문제를 바른신앙위원회로 보내 연구해 대책을 마련한 후 해당 교단에 한교연의 이단사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기도의 불씨가 한반도를 덮게 되기를

(사)세기총, 블라디보스토크서 기도회 개최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의춘 목사, 이하 세기총)는 제1회 백두산 통일기도회와 제2회 한라산통일기도회에 이어 제3회 통일기도회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난 7월 3일(월)부터 6일(목)까지 ‘한반도 통일기도회와 함께 역사문화탐방’이란 주제로 각 단체 임원 등 30여명이 연합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본회 상임회장인 정서영 목사

장으로 있는 기독교민운동중앙협의회와 통일선교대학 숭실대학교기독교대학원 총동문회(대표회장 김덕수 목사)와 같이 연합하여 갖게 되었다.

첫째 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된 통일기도회는 기독교민운동중앙협의회 주관으로 하여 원종훈 목사의 설교가 있었고, 둘째 날은 발해의 역사 현장에서 세기총 주관으로 세기총 직전대표회장인 고시영 목사가 설교

했으며, 셋째 날은 두만강 점령 크라스키노에서 숭실대총동문회 주관으로 김덕수 목사의 설교와 김희진 목사(통합 피어선 총회장)의 통성기도 인도로 진행했다.

한편 행사를 기획하고 공동 진행한 박종호 목사(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총동문회 시무총장 겸 기독교민운동중앙협의회 기획위원장)는 “‘크라스키노’의 안중근 의사와 12명의 애국동지가 1909년 3월 5일 내빈째 손가락을 절단하며 이토로부터를 처단할 것을 다짐한 ‘단치동맹비’ 현장에서, 그리고 1937년 9월 10일 연해주에 살던 우리 선조인 고려인 17만여명을 열차 124대에 나눠 싣고 중앙아시아 7개 지역에 강제 이주시켜 결국 5만여 동포가 추위와 굶주림에 희생되었던 비극의 현장 ‘우스리스크의 라즈돌리노에 역’에서 ‘현장 기도회’를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회 4천여 원로목회자 한자리

‘201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및 ‘원로목회자 체육대회’ 개최

201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및 원로목회자 체육대회’가 지난 7월 4일(화) 서울 잠충체육관에서 ‘우리가 다시 서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이 주최하고 201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조직위원회·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대회는 약 1만 2천여 명의 원로목회자들 중, 선착순으로 신청한 원로목회자 부부 4천여 명이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와 함께 진행돼 더욱 뜻깊게 치러졌다.

김진옥 목사(한국기독교원로재단 상임대표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대성회는 문세광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대표회장)의 대표기도, 김상복 목사(엠펙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총재)·정근모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총재)의 특별메시지, 특별기도, 임원순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한은수 감독(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대표회장)의 개회사, 이상모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대표회장)의 축지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원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원로목사님들은 우리의 믿음의 부모이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영적 성장을 도와주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있다. 이 원로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대성회와 체육대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독일 비텐베르크 종교개혁박람회

한장총, 한국장로교의 역사 등 자료 전시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는 종교개혁500주년을 맞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개최하는 종교개혁박람회에 참가하여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와 성장,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료를 전시하고 해외의 교회 대표들과 교류를 통한 개혁의 의미를 되새겼다.



지난 7월 6일(목) 오전, 한장총 인도로 연합예배와 프랑스교회의 소개, 그리고 독일개신교회(EKD) 주최로 진행된 한장총 대표회장 인터뷰로 에큐메니컬 소파 순서가 있었다. 오전 9시 45분(현지시간)에 개최한 연합예배는 박람회 부스를 함께 공유하는 에콰도르교회, 프랑스에 있는 독일인교회가 참여하

였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는 한장총 관계자 13명, 장신대 교수 및 학생 15명, 그리고 방문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장총 종교개혁500주년준비위원장 안만길 목사의 영어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채영남 목사는 설교(본문 민수기 9:15-23)를 통해 “진정한 개혁은 이스라엘이 구름기둥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춘, 하나님 중심(stand on God-centerednes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교 후 주제기도 순서에서는 진정한 교회개혁, 한반도 및 세계 평화,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회자가 한국식 통성기도를 제안하여 외국 참석자들이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반응이 있었다.

예배 후 프랑스에 거주하는 독일인교회의 역사와 신앙을 소개하였고, 에큐메니컬 소파시간에는 독일교회에서 한장총 대표회장에 대한 공개인터뷰가 있었다.

생명나눔문화 확산 위해 에스원 나서

그룹 전략회의 통해 장기기증 서약식 진행

(재)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에스원 BE사업부 생명FM그룹(대표이사 육현표 이하 에스원생명FM그룹)’과 함께 장기기증 설명회 및 서약식을 진행했다.

에스원생명FM그룹은 지난 6월 29일(목)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생명서초타워에서 그룹 전략회의 중 일부 순서를 통해 장기기증 설명회 및 서약식을 진행했다. 지난 2월 23일 1차 장기기증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설명회이다.

에스원생명FM그룹은 2010년부터 신부전 환우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 나눔 행사를 시작하였고 7년 동안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밥상 봉사들 통해 맺게 된 인연으로 운동본부에서 주관한 장기기증 인식개선과 각막기증 활성화 위한 캠페인 ‘아이프로미스 유(EYE PROMISE YOU)’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서약식을 기획하고 진행한 채진현

소장은 그룹 내의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어머니가 만성 신부전으로 10년 동안 혈액투석을 받고 있어 장기기증에 관심이 많았다는 채 소장은 “장기기증은 내가 죽은 후 타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주는 것이며 나도 언젠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며

그룹 내에서 장기기증 서약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두 번의 서약식을 통해 총 52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에스원에서 장기기증 설명회와 서약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6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성경전서 3,400만부 이상 반포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에 성경 약 3,429만 부가 반포되었으며,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포함하여 총 4억 140만여 부의 성서가 반포되었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인해 긴장과 불안에 휩싸인 유럽, 중동 지역에서는 2015년에 비해 57만 부 가량 증가한 298만 여부의 성경전서를 보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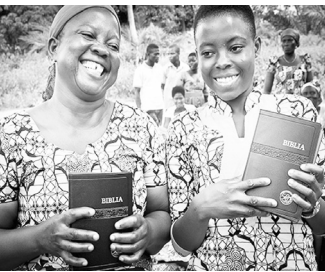
국민 10명 중 9명이 무슬림인 방글라데시에서 방글라데시성서공회는 도서 박람회,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약성서 반포사역을 진행하였고, 2015년에 비해 총 8배 이상인 105,081부의 신약성서를 반포하였다.

전체 성서 보급 대비 성경전서 반포 비중

이 높은 아프리카 지역은 662만 여부의 성경전서를 보급하였다. 이는 공급된 전체 성서 자료 중 약 73%이다. 성경전서 보급수는 2015년에 비해 약 94만 부 가량 감소하였고, 전체 성서 보급수 역시 지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미주지역은 2015년에 비해 약 91만 부 가량 증가한 1,566여 만 부의 성경전서를 포함한 전체 성서 보급수가 3억 2천여 부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하였다.

2013년부터 ‘쿠바에 백만 부의 성경을’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쿠바성서공회의 단편성서 보급은 두 배로 늘어나 35만 여 부를 보급하였고, 점차 늘어나는 성서 반포를 기



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2015년에 비해 약 63만부 가량 감소하여 901만 부의 성경전서를 보급하였다.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TS 성경공부 프로그램 ‘두란노 성경교실’



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성경공부! 이제 TV 속 성경대하이 시작된다.

말씀의 본질을 찾기 위한 ‘CTS 두란노 성경교실’은 그동안 시즌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청자들의 성경공부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다. 또한 교회 및 단체를 방청객으로 초청하고, 기독교 연예인과 CCM가수 등 다양

한 계층들을 패널로 출연시켜, 성경을 강의하는 강사와 시청자들과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과 대화를 활발하게 진행하여 성경공부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공감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되었다.

프로그램 연출을 맡은 이재선 PD는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새신자 등 모두에게 알맞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바로 ‘두란노 성경교실’이라고 자부한다”면서 “하루 50분 CTS에 채널을 맞추시면 4명의 목사님들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알려드리고, ‘두란노 성경교실’을 시청하시는 동안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의 성경공부 프로그램 ‘CTS 두란노 성경교실(연출 이재선 이하 ‘두란노 성경교실’))에 대한 교계의 반응이 뜨겁다. 말씀이 갈급한 시대에 성령의 다비 같은 성경공부를 통해 시청자들의 영성 성장을 돕는 ‘두란노 성경교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 30분 시청자를 찾아오고 있다.

새로운 시즌을 맞아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월요일 동두천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 ‘출애굽기’ △화요일 대전대동침례교회 조경호 목사 ‘고린도전서’ △수요일 제주성안교회 류정길 목사 ‘호세아’, ‘야모스’ 등을 일방적 설교형식의 성경공부 방식에서 벗어나 패널들과의 대화와 질문을 통해 더 쉽고 더 재미있고 더 은혜

월드비전,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활용 통한 후원자와 소통 강화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인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후원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7월 3일(월) 밝혔다.

카카오 알림톡은 친구 추가 없이 카카오 톡으로 보내는 정보성 알림 메시지 서비스다. 월드비전은 후원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월드비전 소식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월드비전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후원 신청 웹캠 메시지, 이동 서신도착 알림, 후원



관련 소식 등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카카오 알림톡은 글자 수 제한이 있는 문자 메시지에 비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전달

할 수 있어 후원자에게 월드비전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월드비전에서 보낸 메시지가 스팸으로 인식되어 미수신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월드비전 후원자 중 카카오톡 앱(App) 설치 후원자에 한해 발송된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 후원자나 문자메시지로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후원자에 한해서는 계속 문자메시지를 통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명의 말씀



김덕영 목사

•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 전리교회 담임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필요성을 알아도 강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더욱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마귀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능력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를 해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무력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 강한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놓는 기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령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만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려 주어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비를 오게도 했고 오지 않게도 했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 것입니다.

1.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본문에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워지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써 드리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를 회개하여야만 의인이 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15-16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

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저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병이나 기타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면 기도해 주는 사람도 회개해야 하고 기도 받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받기 전에 먼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을 버려야만 위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의인이 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기도가 위력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고집을 부리며 부르짖어 봐야 소용이 없고 내 양심에 거리가 있는 것을 지꾸 달라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세 가지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진리에 대한 동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참다운 신앙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

약 5:15-18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를 떠나서는 믿음에 대해 생각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란 단순히 진리의 지적인 삶이나 진리에 대한 지적인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는 기도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하는 주관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크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3.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로써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는 아무 쓸모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하여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간절하게 할 때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 밤을 세워가며 기도했습니다. 특히 공생애를 앞두고는 40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 생활의 호흡인 동시에 유일의 무기로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위로와 능력을 받아 이 세상과 마귀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여 의인이 되어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기도를 드려야 되며,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위대한 일을 하고 승리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여 역사하는 힘이 많은 간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민주주의에 대한 내란선동도 양심에 의한 것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인사들이 소위 ‘보리새 염서’를 통해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 등을 ‘양심수’라며 문 대통령에게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동조하는 인사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송기헌, 원혜영, 박광온, 김영주 의원 등이며 그 외에 이재명 성남 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박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5월에 경기 광주 관지암 수련원에서 다수의 RO(지하혁명조직) 조직원을 대상으로 ‘전쟁 상황으로 도래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여 자주적 사회, 적취와 허위가 없는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일체화된 강력한 신념 체제로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의 결사를 이루고,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 자루 권총사상으로 무

장하여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국통일/통일혁명을 완수하지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함’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에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과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라고 선출된 전·현직 교육감들이 국가 법률에 의해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범법자를 ‘양심수’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에게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어느 나라 지도자이며 뻔뻔인지 알 수가 없으며 그야말로 양

심과 책임감이 없는 ‘비양심’의 정치적 선동’으로 들린다.

국가의 근간은 ‘법률’이다. 국회의원들도 ‘법률’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그들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기존의 ‘법률’을 무시하고 편향된 이념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 ‘이적 단체’와 그 책임 위치에 있던 사람들 ‘양심수’로 부르는 저의가 무엇인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허물자는 작당인가?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진정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법을 지키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양심적’ 인지를 묻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진보 정당이 득세하고 있으나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재민은 시퍼렇게 살아 있으며 국민들은 두 눈 크게 뜨고 현정권과 이반에 왜곡된 ‘양심’을 들먹이는 인사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

정치에는 막강한 권리와 권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에 ‘내란선동 혐의’ 인사를 ‘양심수’라고 부르며 국민들을 선동한 공직자들은 지역민의 힘으로 즉각 퇴치해야 하며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즉각 징계해야 한다.

정치와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와 국민은 영원함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문 대통령도 이런 잠꼬대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 정권 자체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정

한기총 선관위원장 지역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관위원장에 지역 목사를 선임했다. 박종훈 직무대행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며, 불법·금권이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일래 목사 원로목사에 취임



조일래 목사는 지난 7월 9일(주일) 인천 수정성결교회에서 열린 원로목사 추대예식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에서 인천 수정성결교회 원로목사에 추대됐다. 후임에는 대전 성산성결교회를 담임하던 이성준 목사가 취임했다. 수정성결교회는 이날 40년간 선교 중심의 목회에 주력했던 조 목사의 성역을 기념했다.

용혜원 목사 81번째 시집



용혜원 목사가 신약 2000년, 구약을 500년 읽으며 쓴 기도시를 편집하여 81번째 시집 ‘날마다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를 출간했다. 이 시집에는 시인이 30년 동안 신약 2천번, 구약 5백번을 읽으며 그때그때 쓴 1004편의 기도시가 담겨져 있으며 1천 백 여 페이지 분량의 시집에는 상황에 따른 기도시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주남석 목사, 우간다 구호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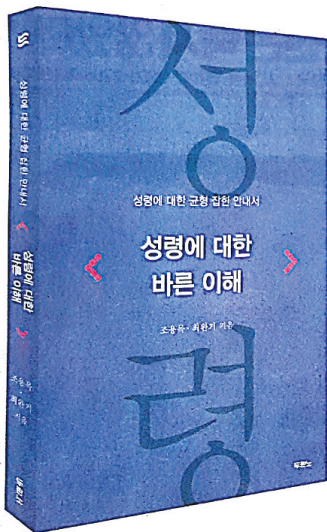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경총회장 주남석 목사(세한교회 원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왔다. 주

목사는 지난 6월 11~18일까지 월드비전(회장 양승호) 구호팀, CTS ‘7000 Miracle’ 제작팀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를 방문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새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우물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히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물사전 Who's Who에 등재 ②

미국 117년 역사, 세계적인 인명사전 Who's Who에 산업 지도자로 선정



박진철 목사
강남지방회
주홍순복음교회 담임

3년 전 나의 가장 친한 고등학교 동창생 친구 중의 한 명인 김동수 장로와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세계금식기도원을 일주일 여정으로 방문했다. 이 기도는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비서실장의 따님인 최종숙 목사가 원장으로 시무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루임자로 추천했다고 했다.

그래서 1주일 여정으로 그곳 기도를원을 탐방하고 기도를원장님을 만나서 결정하기로 했다. 기도를원으로 가는 도중 캐나다 밴쿠버 공항을 경유하게 되었는데, 공항 대합실에서 미국 CNN방송을 통해 3가지 뉴스가 전파되는 것을 시청했다. 하나는 이스라엘군 전투기들이 가자지구를 공습해서 많은 양민이 학살되어 분노하는 모습, 중국 쓰촨 성에 큰 홍수가 나서 큰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는 주민들의 인터뷰, 그리고 미국이 탈리아에 처음 착륙한 지 40주년이 되는 날이라 축하 기념식을 갖고 기념하는 내용들이었다. 시청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가졌다. 그 날 저녁 늦게 기도를원에 도착해서 마련된 숙소에서 들어가 맨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삼켰다고 고백하고, 제비뽑기 식으로 성경을 무작위로 펼쳤는데 시편 105편이 열렸다. 피곤이 겹쳐 겨우 성경을 읽고 막 잠이 들려는 비몽사몽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파하라”라는 음성이 들렸다. 깜짝 놀라 다시 일어나 시편 105편을 다시 정독했다.

또 중간에 요셉 이야기를 읽는 순간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고 감동으로 다가왔다. 시편 105편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나의 그때까지의 처지와 가장 비슷한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조섭이라는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아침에 일어나 문밖으로 나갔더니 마침 한 목사님이 내 기도실 앞에서 마당 청소하고 계셨다. 직감적으로 원장님으로 느껴져 무릎 꿇고 기도해달



라고 부탁했더니 처음 기도 내용이 요셉 같은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어서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세속적인 의미가 담긴 이름을 신앙의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로 인해 이름을 부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며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도구로 삼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그날 점심 식사 때 기도를원 식당에서 감리교신학대학 총장을 마치고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김홍기 박사님을 만났다. 나에게 일단 샌프란시스코에 왔으니 꼭 방문해야 할 곳과 들려야 할 식당 등을 약도를 그려 가며 알려 주셨다. 특별히 금분교 다리를 네 방향에서 바라보라. 하시고 스탠퍼드 대학교와 팔립버스 동상을 볼 것을 추천해 주셨다. 제일 처음 금분교 다리를 왜 네 방향에서 보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금분교를 쳐다보는 순간 성경께서는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금분교를 밟고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건너간 것과 비즈니스 선교가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시고 앞으로 저 다리와 같은 존재가 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스탠퍼드 대학교를 견학하게 되었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스탠퍼드 대학 설립자 일화를 설교 때에 예화로 책에서 베껴서 쓴 적도 있는데 외서 발로 역사의 현장을 직접 밟아보니 감개무량하고 한 사람을 이

렇게 하나님께서 놀라게 들어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마지막 코스로 팔립버스 동상을 보는 순간 한국에 돌아가라 팔립버스와 같은 탐험기적인 기질을 가지고 남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교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여행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설립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실리컨밸리 지역의 기독교산업인 모임에서 김동수 장로는 리더십을 강의하고 뒤이어 나는 설교를 하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중국 모택동과 심어 명의 소수의 장군들만으로도 모택동의 탁월한 지도력과 불굴의 의지를 합하여 중국 공산화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했다. 만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일 예배에 참석한 믿음의 싹들이 본질에 충실하고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구로 쓰셔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염사이드다운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거듭 사사기 1장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앞장서고자 하는 자에게 앞장설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미국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가 팔립버스처럼 탐험기적인 기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 역사적인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 테니 함께 동참하자고 흥분 조로 호소했다.

하지만 반응은 우리에겐 무색하리 만큼 싸늘했다. 행사를 모두 마치고 나가는 한 젊은 실업자가 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여기 와서 헌신하라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 한편 맨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늦게 나가시는 두 명의 장로는 몇 년 만에 설교다운 설교를 들었으며 감사하다고 했다.

여행을 마치고 국내에 돌아왔는데 로마서 16장 3, 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분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라는 말씀을 깨닫게 했다. 내 주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을 목숨 걸고 동역하는 브리스가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떠할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 바울의 동역자는 몇 명이나 될까? 16장에 동역자들이 38명이나 언급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포커스 / 성경적 경제부흥 7

최정식 목사(순복음복된교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할까?



하나님의 재물은 무한한 자원으로서 약속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성경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 부자 되게 하는 경영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장수의 복과, 가족 번성의 복, 토지의 소산을 풍성하게 거두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신 28:1-14). 뿐만 아니라, 자손 번성의 복이 강조되어있고 질병이나 다른 것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복도 있다. 그럼에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현실적이며 긍정적인 복은 물질의 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 경제의 관점을 목회자의 입장에서, 학자의 입장에서, 신앙의 관점에서만 정의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는 영적 주제이고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적 경제부흥은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는다. 어찌나 우연히 받는 것도 아니다. 성경 충만한 사람도, 주의 종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다. 만약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아무에게나 복을 주신다면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복이 있지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현세적인 기복과 현세의 복과 내세적인 복을 함께 구하는 성경적인 복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복을 구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신앙의 대상이나 형상을 향해 절하고 섬기라고 한다. 절을 하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을 향해 인격과 마음과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고, 섬기는 것은 물질적 헌신으로 신앙의 구체적 표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스스로 위안(慰安)은 될지 모르지만 요행을 바라는 부질없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이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출 20:5, 신 5:9)고 경고한다.

성경적 부요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나라 유산의 일부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상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요 3:16), 죄의 문제가 청산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1:12), 백성으로서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부터 아브라

함의 복을 합법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갈 3:7,14).

신앙은 관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 관계가 막히면 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이다. 성경에서 모든 복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성경적 경제 부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1.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복의 주체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다(창 1:1).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다.

2.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난과 저주를 청산하시고 합법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갈 3:9,13,14,29).

3. 조성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잠 19:14 “집과 재물은 조성에게서 상속한다”고 말씀하셨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식을 낳고 기른다. 따라서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부모공경만 잘해도 이 땅에서 절대로 장수하는 복을 받는 것이다(창 20:12, 신 5:16, 엡 6:1-3).

4.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복의 통로다(민 6:27, 뱌전 3:9).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복을 빌어주는 복의 전달자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5.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남편을 무시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6.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성공한다.

7. 근면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잠 11:16, 13:4, 22:29, 21:5, 31:10-18). 우리가 일을 안 하면 세상에서 쓸 물질이 없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고 부지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렘 34:26)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의 인생가운데 장대비처럼 쏟아지시기를 축복한다. 다음 시간에는 왜! 아브라함의 복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한다.



세계적인 인명사전 후즈후에 본 교단 박진철 목사 등재

산업 지도자(Industry Leader)

- **직업:** 담임목사, 교수, 선교사
- **교육:**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박사 (2012)
- **직업:**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2009-현재), 강남지방회 주홍순복음교회, 담임목사 (1999-현재) 청와대기독신우회, 지도목사(2002-2013) 미국 연방경찰 특수수사관 (1990-2003)
- **수상 내역:** 필리핀 적십자사 총재, 감사장 (2016),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최우수 석사 논문상 (1998)
- **창조적인 업적:** 제5차 국제학술대회 논문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선교전략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15)
- **성과:** 필리핀 사령 내 사립종합병원 1개, 고등학교 1개, 초등학교 1개, 사립 도서관 1개, 보 건소 4개, 반군 원주민 지역과 태풍 피해 지역에 주택 355채 건축 등 비정부기구, 정부 기관 및 아시아 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파송된 선교사와 함께 소외 계층을 돕는 데 헌신함
- **가족:** 처: 0명에 딸: 박은혜 아들: 박민석

[네이버 지식백과] 마르퀴즈 후즈 후 (시상식사전, 박문각)
미국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사전(BC)과 함께 세계 3대 세계인명사전을 발행하는 곳. 마르퀴즈후즈후사는 1899년에 문을 열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세계인명기관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후즈후인터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발간하고 있다. 후즈후 인터월드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매년 세계적 인물 5만여 명을 선정, 프로필과 업적을 동재하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 세계인명사전이 부장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재정산업부문 세계인명사전(Who's Who in Finance and Industry, 2002-2003) 또는 과학기술부문 세계인명사전(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 등이다. 마르퀴즈 후즈 후에서 발행하는 인명사전은 100여년의 오랜 역사와 철저되고 일관된 편집정책 등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도서관 등에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어 전문 인력정보 제공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책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태백산금식기도원 여름산상대성회

강사

원장



진동웅 목사
예하성 중경총회장
새소망교회



이창재 목사
예하성 중경총회장
진부제일교회



임기설 목사
예하성 총무
은혜와천교회



신재영 목사
예하성 부총회장
새김천교회



장재순 전도사
태백산금식기도원 원장

태백산금식기도원 설립자
전 태백산금식기도원 원장
전 태백산복음교회 담임
전 태백시7독교연합회장
전 태백시교경협의회장 겸목

성령과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여름 속의 가을! 시원한 바람 불어오는
무더위가 없는 태백산금식기도원에서
유명 강사님들을 모시고 복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

일 자 | 2017년 7월 24일(월) ~ 27일(목)

시 간 |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대 상 |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

장 소 | 태백산금식기도원 원장 장재순 전도사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서학골 906-26
033)553-1900, 010)8406-0089

후 원 | 예하성부흥사회, 새소망교회

● 오시는길: 광주원주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강원남로 → 태백문화원지나 서학골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관목으로 ‘블랙초크베리’라고 불립니다. 가혹하고 척박한 생육환경에도 강력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아로니아는 중세 유럽 왕족과 귀족들이 질병예방과 치료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면서 ‘왕의 열매’ (King's Berry)라는 별명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아로니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신비의 열매로서 현대인의 신체의 여러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탁월한 성분

아로니아는 칼륨과 같은 다양한 유기 미네랄과 다양한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로니아는 세포가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항암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로니아 속에는 안토시아닌은 포도의 79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약 4배에 이르는 양이 포함되어 있고, 카테킨,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등의 폴리페놀도 포도의 11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5배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로니아 생과에 포함된 영양성분



효능

- 강력한 항산화 작용: 유해 활성산소 제거
- 항당뇨 작용: 혈당을 억제하고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
- 항암, 항염, 항괴양 (위 보호 효과): 악성세포의 성장을 막고 세포 자살을 유도
- 소염, 항균(살균), 항알러지 작용: 관절염 예방 및 치료, 알러지 증상 개선
- 시력보호: 로돕신이라는 색소의 재합성을 촉진시켜 눈의 피로, 시력을 개선
- 피부 노화방지: 활성산소를 중화해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부 손상 노화 방지 및 보호
- 심혈관계 질환 예방: 혈전 발생 억제, 콜레스테롤 억제, 고혈압 예방, 심장질환 및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 기억력 개선 효능
- 면역력 강화

섭취 방법

아로니아는 단맛과 신맛 그리고 떫은맛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그냥 먹거나 우유나 요구르트 또는 과일주스와 함께 믹서기로 갈아서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잼 또는 설탕으로 먹을 수 있고 건강에 더욱 좋은 효소 발효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100세 시대에 접어들어 한국인의 건강을 책임질 최고의 과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의 교역자 및 성도 여러분, 무농약으로 재배한 좋은 품질의 아로니아를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려고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504076-02-072136 (예금주 김갑신)

구입문의 010-3621-4853

한돌 아로니아농장

전라남도 여수시 삼암동 8길 38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내역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196만원 2호 3호 는 가족들의 선택임 >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관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2017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5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주제 : 'The Goal'
(부제 : The Highest calling)"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 빌 3:14 -

♡♡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목사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를 위해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내 미자립교회 및 소규모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방회별로 팀을 이루어 연합하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 제5회 청소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올림-

- 일 정 : 2017년 7월 31일(월) ~ 8월 2일(수) 2박3일간
- 장 소 : 대림벤엘교회 평창수양관(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1길 21-4)
- 주 제 : 'The Goal' (빌 3:14)
(부제 : The Highest calling)
- 프로그램 : 만남(OT) & 레크레이션, 경배와 찬양, 부흥회, 찬양콘서트, 특강, 공동체훈련, 장기자랑, 발표(간증)
- 대 상 : 본 교단 산하 전국 각 교회 중 · 고등부
- 등 록 비 : 70,000원(식대, 숙박비, 교재비 일체 포함)
- 접수방법 : 전화 신청 후 1인당 1만원 계좌송금(선착순 마감)
미자립교회는 상담 후 등록비 조정 가능함
- 접수 및 문의
 - ① 대림벤엘교회 교육부 02)845-5095, FAX. 02)845-5097
 - ② 이영옥 전도사 : 010-4206-4006
- 등록비입금 및 후원금 계좌 : 외환은행 191-18-47059-4(예금주 임형순)

고문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리교회 담임

대회장

김양인 목사
교단 총회장
목양제일교회 담임

진행위원장

조선남 목사
대림벤엘교회 담임오세준 목사
침종은교회 담임

진행위원

이경진 목사
다사랑교회 담임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담임변원식 목사
창조교회 담임배윤로 목사
안디옥교회관승철 목사
남원중앙교회

준비위원

강수용 전도사(대림벤엘교회)
이영옥 전도사(대림벤엘교회)
고대운 전도사(순복음아멘교회)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후원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및 각 지방회, 대림벤엘교회 교육부

영화 <예수는 역사다> 13일 전국 개봉

실화를 바탕으로 한 1,400만 부 발행 베스트셀러 원작!
북미 박스오피스 TOP10에 이름을 올린 경이로운 흥행 기록!
놀라운 작품을 향한 세계의 쏟아지는 찬사!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을 갈 수 있다고 굳게 믿던 한 남자가 신의 부재를 증명하기 위해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발견해 나가는 놀라운 진실을 그려낸 감동 드라마 <예수는 역사다>가 지난 7월 13일(목) 국내 개봉되었다.

세계적으로 1,400만부 이상이 발행된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자 작가 리 스트로벨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 <예수는 역사다>는 능력 있는 신인 기자이자 행복한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주인공 '리 스트로벨'이 냉소적인 무신론자에서 믿음을 전도하는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치열한 과정을 리얼하고도 감동하게 그려내며, 역

사적 사실에 근거한 예수의 존재를 감동적으로 증명해 내는 작품이다.

앞서 미국 개봉 당시 북미 박스오피스 9위를 기록, 놀라운 흥행 기록을 남긴 작품이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 스토리로 극찬을 불러일으킨 영화 <예수는 역사다>는 "학고한 믿음과 신념을 주는, 매혹적인 영화!"(Hollywood Reporter), "이 영화로 인해, 당신의 믿음과 신념이 확인된다"(Los Angeles Times), "수사기법을 사용한 이야기가 흥미롭다"(Variety) 등 세계 언론의 뜨거운 극찬을 이끈 바 있어 국내 기독교인들은 물론 영화계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주도 독거어르신을 위한 뷰티서비스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새월드뷰티웍스(WBH, 이사장 정현일, 회장 최에스터)는 지난 7월 13일(목) 제주시 애월읍 구암복지회관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소외되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헤어·미용과 네일과 손관리 등 뷰티 서비스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기쁜시간을 가졌다.

이날 뷰티서비스에는 WBH중앙회 이사인 김민 교수와 하준호 교수(신안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과)를 비롯한 미용분야 교수와 자원봉사자와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헤어미용, 네일 등 다양한 뷰티서비스를 통해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사)월드뷰티웍스는 서울역 노숙자와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뷰티서비스 활동과 다문화 가족, 북한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기술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저개발국 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시켜 진행하고 있다.

(사)월드뷰티웍스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의 전문 교수와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뷰티구호개발NGO로 정부의 1365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 뷰티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뷰티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지부 사랑의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 출범

라파의집 10주년 기념 활성화위원회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 마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 이사장 박진택)는 지난 7월 4일(화),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라파의집에서 제주지부 사랑의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이하 제주지부 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교계가 앞장서 국내 장기기증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전국 14개 교단의 총회장 및 대표와 각 교단의 200여 교회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활성화위원회를 결성했고 그 뜻을 이어 제주지역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제주지부 사랑의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지부 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는 김효근 목사(제주한림교회), 류덕중 목사(대정교회), 박성천

목사(서귀포동원교회), 박수옥 목사(귀덕교회), 배성열 목사(서귀포제일교회), 손범수 목사(안덕교회), 오병근 목사(애월교회), 이기원 목사(서귀포성결교회), 이상호 목사(서귀포중앙교회), 이정우 목사(시온교회), 임장원 목사(방주교회), 정석범 목사(제주심양교회), 정종열 목사(비전교회), 재종원 목사(동남교회), 조봉래 목사(평안교회), 황호민 목사(구좌제일교회), 장석준 목사(도평교회), 류정길 목사(제주성안교회)로 구성됐다. 20개 교회의 목사가 함께하게 된 제주지부 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는 재종원 목사가 활성화위원장을 맡게 됐다.

4일 오전 7시 30분, 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 출범

식은 제주라파의집 10주년 감사예배를 통해 진행됐다.

제주라파의집은 혈액투석 환우들을 위한 종합휴양시설로 투석치료와 함께 숙식, 관광을 무료로 제공해 개원 이후 총 4,900여 명의 혈액투석 환우들이 제주라파의집을 다녀가며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

제주라파의집의 개원 10주년을 축하하며 제주지부 장기기증 활성화위원회의 특송이 있었다. 17명의 목사들이 합창단을 이뤄 라파의집 개원 10주년 기념과 제주지부 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특송을 준비했다.

박진택 이사장은 "아름다운 특송만큼 제주지부 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가 제주지역에 장기기증이라는 아름다운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라파의집 10주년을 맞아 제주지역의 장기기증 활성화의 도약을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난 1991년 설립된 본부는 26년의 해를 거듭하면서, 94여만명의 장기기증등록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장기기증 단체로 성장했다.

특히 본부 등록자의 80%가 넘는 등록자가 기독교인인 만큼 많은 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참여가 이어졌다.

이같이 장기기증운동에 대한 기독교의 관심은 지금까지 5,000여 교회가 장기기증예배에 참여했을 정도로 뜨겁다.

앞으로 제주지부 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에 이어 전국 각 지역에서 한국교회에서 뜨거운 생명나눔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고자 각 지역별 사랑의장기기증활성화위원회가 출범될 예정이다.



구세군, 방과 후 아이들 위한 지원 사업 펼쳐

‘mom편한 꿈다락’ 1호점 군산에 오픈

구세군자선냄비본부가 ‘mom편한 꿈다락’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구세군자선냄비본부와 롯데그룹이 함께하는 ‘mom편한 꿈다락’은 방과 후 아이들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공간을 조성해주는 사업이다. 아이들의 공부방 환경 개선을 위해 학습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안전 및 위생 공사가 진행된다. 이번 1호점을 시작으로 올해 약 20개소, 5년 내 1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픈식에는 구세군자선냄비본부 신재국 사무총

장, 롯데그룹 경영혁신실 커뮤니케이션팀 오성엽 부사장, 롯데주류 군산공장 김은수 공장장,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구세군 관계자는 "꿈다락이란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아이들 모습에 내내 행복했다."며 "롯데와 뜻깊은 일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구세군은 새희망창립년도장학지원사업을 통한 소년소녀가장장학지원사업, 희망장학금, 학원장학금, 만영장학금 등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원로목자교회 수요일예배 전국서 참여

3시간 걸려 목포에서도 참석...수요일 오전 종로5가 들썩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 산하 한국원로목자교회(담임 한은수 목사)가 설립된 지 3개월 만에 4백여 명의 원로목회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원로목회자 예배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국원로목자교회는 지난 4월 12일 오전 목자카페에서 40여 명의 원로목회자들이 설립예배를 드리고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서 온 원로목회자들의 제2의 사역지가 되고 있다.

원로목회자들은 수요일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의 증인으로 헌신하기를 원한다. 선교의 도전을 받고 참된 증인으로 파송되기를 원한다.

지난 4월 12일엔 원로목사(76)는 키르기스스탄으로 파송됐으며 6월 김상봉 원로목사(74)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식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헌신하여 파송을 원하는 원로목회자는 재단에 신청을 하면 훈련과 교육을 통해 파송을 받을 수 있다.

한국원로목자교회 수요일예배는 5월 너무 많은 원로목회자들이 참석을 하여 목자카페 장소의 한계를 느껴 6월부터는 기독교연합회관 17층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 6월 8일 287명 참석, 6월 14일 295명 참석, 6월 21일 312명 참석, 6월 28일 312명이 참석하며 원로목회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월 5일에는 원로목회자 체육대회로 인해 한 주를 지나 7월 12일 456명이 참석하며 원로목회자들의 예배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원로목회자의 사명은 끝이 없다. 한국원로목자교회의 수요일예배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여, 끊임없는 기도로 후배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모범과 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복음은 확산되어야 한다”

와 보라, 가족세트전도
여기에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사마리아 수가성 무물과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갔다.

그리고 ‘와 보라’ 고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가족세트전도를 3번째 참관한 나는 ‘와 보라’ 고 외치고 싶다.

나의 남편은 보수적인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이다. 남의 것을 잘 따라하지 않고, 웬만한 세마나에도 가지 않는다. 어쩌다 한 번 참석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가족세트전도 세미나에는 두 번을 참석하더니, 세 번째에는 우리교회에 박영수 목사님을 초청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도 참석한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전도법임에는 틀림없다.

가족세트전도를 알고 나이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가족세트전도를 알기 전, 담임목회 20년째인 교회의 부흥은 안되고 그동안 양육한 성도들이 떠나감으로 실망과 좌절이 나를 낙심하게 했다. 내 마음에 영혼을 향한 사람이 무뎠던데했다.

그런데 박영수 목사님을 통하여 배우게 된 영접기도문이 내 마음을 울렸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영접기도문과 비슷하지만 아예 간절하고 끝까지 감동되고 있다.

-영접 기도문-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전국 각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문의 끝으로 “구원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외칠 때는 그것이 진실로 나의고백이 되었고 예수님을 능력있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

강사 목사님이 41년간 이 전도법으로 영혼을 구원한 노하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세웠다.

가족세트전도법을 통해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성령충만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한다. 성전의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대구꿈빛강성교회 이경숙 사모)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4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통일교 주최 사회활동 및 행사 경계와 주의

통일교대책협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 통일교행사 참석 주의 당부



이영선 목사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이하 통대협)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이영선 목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통일교 주최의 다양한 사회 활동 및 행사에 일반인이나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통일교의 전 교주인 문선명이 사망 전 기존의 후계자였던 문현진에서 문형진을 새 후계자로 추대하였으나 문선명 사망 후 통일교는 문현진, 문형진을 후계구도에서 밀어내고 한학자를 전면에 내세우며 통일교의 모든 행사를 이끌고 있다. 이에 문현진, 문형진은 분란을 가지고 현재 각자의 교회를 만들어 별도의 합동 결산식 진행 등 대립하며 각자의 행보를 걷고 있는 상태이다.

통대협은 지난 7월 3일(월) 오후 2시에 통대협 사무실(기독교회관 1002호)에서 통대협 주관으로 여러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교 척결을 위한 특별기도회’, ‘故 박준철 목사 13주기 추모예배’, ‘故 박정아 목사 3주기 추모예배’를 은혜로운 가운데 드렸다고 밝혔다. 추모예배는 통대협 운영회장 남윤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통대협 대표회장 최재우 목사의 추모사, 삼일총무 한신국 목사의 대표기도, 회계 유경선 장로의 헌금기도, 유족대표 인사는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가 맡았다.

통대협을 창립한 故 박준철 목사는 31년간 통일교에 교역자로 활동해 오다가 2001년 1월 9일에 통일교를 탈퇴한 이후, 문선명 집단의 비리를 폭로하다가 2003년 1월 23일 통일교 대처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한국기독교 통일교대책협의회’를 창립하였다.

이후 통일교제품 불매운동, 2003년 피스캣 축구대회 저지운동, 문선명 집단의 가정당 창당 저지운동, 용평스키장 반대운동, 여수 관광단지 저지운동, 순결교육, 순결캠프 저지운동 등을 주도하는 등 통일



교비전리성을 알리는데 헌신하였다.

故 박준철 목사는 2004년 7월까지 기독교 방송, 언론사 50여 곳 등에 통일교의 합동결산식 등 비전리성 및 비리폭로 관한 내용을 2000여 회 언론 보도를 추진한 결과 2000년도에 45만명에 이르던 통일교의 합동결산식은 2001년 3만 5천 명, 2002년 3천 5백 명, 2003년 3500 명에 이르기까지 100분의 1로 축소됐다.

통대협 사무총장과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교회언론회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위원(방송·언론)으로 활동한 故 박준철 목사는 과천 통일교 현지목사로 시무 중이던 2001년 1월 9일 문선명 집단의 비리폭로 기자회견 후 가족전체가 탈퇴하였다.

故 박준철 목사는 문선명 집단과 2002년 1월 16일에 통일교 비리폭로 저서인 ‘폐악인 30년,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민사재판에서 최초로 승소하였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2004년 7월 12일부터 19번째 회차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지병으로 7월 20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안타깝게 무효처리 되었다.

또 故 박정아 목사는 故 박준철 목사의 막내딸로서 2003년 통대협 창립때부터 불치병인 루푸스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대협 간사로서 통일교 척결을 위한 통대협 활동과 안살림을 맡아 최선을 다해 왔었다.

그외중에 2014년 7월 16일 지병인 루푸스의 합병증으로 故 박준철 목사의 소천일을 불과 4일 앞두고 만 3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년 기도회와 추모예배에서 여러 목사와 성도들은 통대협 창립자 故 박준철 목사가 생전에 보도한 방송 보도 내용과 활동했던 사진을 통하여 통일교 척결을 위해 싸우다 소천한 故 박준철 목사를 추모하였다.

유족대표로 이영선 목사는 “지금까지 통대협이 지속적으로 통일교 규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대표회장 최재우 목사님과 모든 직책을 맡고 계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통대협 후원을 통해 통일교 척결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계신 전국의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대협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신 모든 기독교 방송과 언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석자들은 故 박준철 목사의 뜻을 이어받아 더 이상 통일교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통일교 척결운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후원헌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44202-04-078236 예금주: 이영선(통일교대책협의회)

이영선 목사 간증초청 연락전화: TEL] 02-744-2422 / H · P 010-4214-7720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대표 김옥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루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 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19,000원(택배비 포함)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더량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중동부전선 제7보병사단 방문, 최전선 철통방위 장병 위문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정부용 목사-다윗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용사 당부



정부용 목사
(사)한국기독교교단협
대표회장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정부용 목사·대림번영교회 당회장)는 지난 7월 13일(목) 중동부전선 제7보병사단을 방문하고 최전선 철통방위를 위해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회원 목회자들은 이른 아침 서울을 출발하여 오전 11시경에 사단에 도착하여 사단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들으며 회원들을 마중 나온 사단장(김종철 소장)과 참모들의 영접을 받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현관에서 준비해간 위문품을 증정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부대관계자는 이 지역은 6.25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로 많은 전사자들이 생겨난 곳이며 가장

늦게 총성이 멈춘 곳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단소개 영상, 안보강연, 기념품을 교환하고 7사단과 부대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서로 인사를 나누는 뒤 오찬을 함께하고 칠성전방 대를 방문했다.

관측장교로부터 북한의 동향을 설명 듣고 장병들의 생활용품과 내부 생활을 살펴보고 기념촬영을 한 뒤 제16포병부대 교회에서 기념예배를 드리고 장병들을 축복했다.

이날 예배는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재정정책위원장 이고의 목사의 대표기도, 회계 이상용 목사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정부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시 23: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

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장병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다윗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고 강조한 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특히 아들이 23년 전 이곳에서 군복무했었다고 전하고 더욱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 '제7사단장과 예비부대 군인과 군선교를 위해', '대한민국 군인을 위해' 공병철 목사, 김해순 목사, 김명희 목사가 각각 주례별 기도를 인도했다. 계속해서 대림번영교회 담임 조진남 목사의 격려사, 동협의회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의 광고, 대표회장 정부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Blueberry Farm 가비안농장은

E-mail. blueberry5659@gmail.com

“주변 근거리에 제조업 공장 등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에 있습니다. 생과, 냉동 블루베리, 식초, 원액(효소) 등을 직접 생산 판매합니다.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전제품을 유통마진없이 착한 가격에 드립니다.”

블루베리의 효능

- ① 항암효과 및 면역력 향상
- 안토시아닌 성분
- ② 심혈관 질환의 예방 및 개선
- 해로운 콜레스테롤 감소
- ③ 시력회복 및 눈 건강 유지효과
- 비타민C의 250배 효과
- ④ 피부미용에 좋은 효과
- 변비와 항염효능 탁월
- ⑤ 두뇌 노화억제 및 기억능력 향상
- 산화방지 성분

설탕 대신 블루베리 100% 원액을 사용해서 영양을 동시에 챙기세요!

블루베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

몸 안의 세포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아침 '식전'이 가장 좋습니다.(하루 40알 정도 꾸준히)



가비안농장

충청남도 공주시 신동면 산정리 209
새마을금고 3234-1000-95418 박혜영

100% 블루베리 원액(효소) 및 생과 활용법



주문상담 010-2442-5853, 010-3523-1457

지리산선교유적지보존연합 임시총회 열려

왕시루봉 선교 유적지 3차원 입체 촬영 마쳐

지난 6월 말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이 임시 총회를 개최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 급수산 호텔 아리랑 하우스에서 개최된 이날 임시 총회에서는 오정희 상임이사의 사회로 총회가 진행되었는데, 중요한 안건과 실행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보고 가운데 하나는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유적지 12채에 대하여 3D 촬영(입체)을 마친 것과 또 하나는 전남대, 조선대 및 지역 학계와 지역의 평신도 위주로 총회 회원을 재정비하여 선교사 유적지를 보존하는 것 그리고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에 박자를 가하기로 하였다.

유적지에 대한 3D 입체 촬영의 배경은 지난 2011년 1월 구례군 토지면에서 시작된 산불로 인하여 지리산 왕시루봉 5부 능선까지 화재로 유적지가 소실(燒失) 위기를 맞은 것을 기화로 2016년 11월 익명의 독지자의 기부로 인해 유적지 12채에 대한 3D 입체 촬영을 드론으로 마쳤으며 촬영 장비를 할기로 수송하는 등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음이 알려졌다.

3D 촬영을 한 이유는 2차원 영상이 아니라 입체적인 3차원의 정밀한 촬영을 통해 재난이나 화재로 인해 유적지가 손실된다 하더라도 원형 그대로 복원



헬기용 이용 3D 장비를 나른 후 왕시루봉임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첨단 영상 촬영 기법을 동원한 보존 전략이다.

그리고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 하기 위해 자신들의 안위(安危)를 돌보지 않을 정도로 헌신적이었던 믿음의 선진(先進)들의 뜻을 되살려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역사적, 신앙적 교훈의 장소로 삼을 수 있도록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 믿음의 선진들의 흔적과 숨결을 기리는 유적지의 가치를 놓고 특정 지역이나 교단 혹은 개인의 소유물로 만들려는 분영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물질 위주나 관광물(觀光物)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 선교사님들의 올바른 신앙과 정신 계승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홍보하기로 결의하였다

현재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협력 단체는 CCC(대학생선교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한국교회인문화, 다일공동체, 서울기독교청년연합회, 한국청소년보호연맹 광주 지회가 있다. 또 회원들로는 안금남 목사, 인요한 박사, 서민철 교수(전 공주대총장, 한국선교유적연구회 회장), 오정희 소장을 비롯하여 각 대학 교수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안금남 이사장, 인요한 공동 이사장 및 7인 이사의 연임에 관한 건을 결의하였고, 서민철 교수(전 공주대 총장)의 신임이사 취임의 건도 결의하였다.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의 총회 모습

CTS기독교TV 홈페이지 새 단장

사용자 편의성 강화! “확 달라졌어요”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CTS 웹사이트 전체 개편을 진행하여, 17일(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개편 홈페이지(http://www.ctstv.com)를 가동한다고 지난 14일(금)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는, CTS에서 설교 방송 중인 총 230개 교회 중 나와 가장 가까운 교회의 위치를 알려주는 〈세계 최초 위치기반 설교방송 서비스〉, 원하는 주제/절기/성경인물에 맞춰 말씀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테마 설교 서비스〉, 성도들이 자유롭게 SNS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이미지 카드 서비스〉를 비롯하여 젊은 크리스천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캘리그래피 이미지, 교회에서 필요한 주보용 감동 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영 크리스천을 위한 기독교 웹툰 서비스〉, 교회 사역자 채용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역자 채



용정보 서비스), 정확한 검색단어를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검색어 초성 입력 시 자동으로 추천 키워드를 안내해드리는 〈검색 자동 추천 어 서비스〉, SNS 계정을 통해 손쉽게 회원가입 할

수 있는 〈SNS 계정 회원가입〉 등이 제공된다.

CTS 정용혁 홍보팀장은 “이번에 서비스되는 CTS 홈페이지는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사용자 참여와 소통에 역점을 두고 SNS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새 단장 했다”고 밝혔다.

한편 CTS는 홈페이지 새 단장 기념 이벤트를 8월 16일까지 접수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19일이며 △진진바라 10만원 외식상품권 △세점바상 4인 외식상품권 △스카피 이온권 △카친아트 주방 위생 4종 세트 등 총 총 5,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차등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CTS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 설

비뚤어진 성축제... 말씀으로 자녀양육

박원순 서울시장의 올해도 서울시장 앞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축제’ 개최를 허가하여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를 받고 있다.

7월 15일 서울시장 앞광장에서 열린 광란의 그 행사에는 국가 인권위원회와 민변 등 좌파단체 이외에 영국 등 13개 외국 대사관 측도 행사 부스를 만들어 참여하였다. 국가기관까지 조장하는 가운데 하늘을 대적하는 성 도덕 분란 행위가 지금 이 나라에 넘실대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두렵지도 않은가?

하나님은 인간의 음란을 정죄하고 저주하신다. 음란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였다. 출애굽 당시 ‘삿딤’에서는 음행으로 2만 4천을 연병으로 죽이셨다(민 25).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니라”(고전 6:18)고 말씀하고 있다.

나라의 앞날을 지고 갈 청소년 성교육 문제가 우선 가장 급박한 걱정거리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13~24세)의 57%는 혼전동거를 지지했고 네 명 중 한 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 엄청난 양의 성적 자극을 받으며 살고 있다.

사회가 변했고 방송이 변했고 인터넷과 핸드폰이 등장했다. 성적 자극을 주는 매체가 점점 늘어나고 접근하기도 훨씬 쉬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첫 성경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 중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2.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12.7세, 여학생은 13.0세다. 우리 청소년들의 첫 성경험이 평균 초등 5~6학년 때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청소년들의 80%는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해본 경험이 있고, 초등학교생 중에서도 음란물을 보는 아이들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어른들이 모르는 사이, 아이들의 성도덕 유해 환경은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빠르면 초등학교 5~6학년, 늦

으면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서서히, 때로는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를 느낀다.

특히 중학생이 되면 대부분 2차 성적인 징후가 나타난다. 사회 전체적인 성도덕 해이 세태 속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사회 전체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하겠다.

2009년 발간한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지침서’는 5세부터 성교육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5~8세, 8~12세, 12~15세, 15~19세 등 각 연령대에 따른 성교육 지침서가 있다고 한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의무화한 나라다. 만 4세부터 성교육, 15세부터는 피임을 교육한다. 핀란드는 1970년부터 성교육을 필수 교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역시 유치원 때부터 성교육을 하는 등 이른 나이부터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만으로 성적 도덕심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양육될 수는 없음이 요즘 세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성적충동이란 인간의 본성이다. 성적충동, 육신의 정욕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훈련이 한 인격체에 전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성 상식이나 지식은 교육하는 것만으로 성적 인간 본성을 억제하고 도덕적인 인격으로 훈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친다. “배신하며 조금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딤후 3:4,5)고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가 없이는 불완전하다고 하신다(딤후 3:16-17).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어린 유년시절부터 마음과 행동을 잡아가지 않고서는 효력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다. 마음의 무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성교육,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아 인격이 성령 중심으로 인도되게 하는 신앙훈련만이 가장 효과적인 답일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 기울여야.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오목 목사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림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하나님의 계시(아포칼립스)

주님께서 70인을 세워 전도대로 파송했을 때, 전도대들이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이 항복하고 병이 고쳐지고, 마귀가 떠났습니다 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니, 마귀가 떠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기쁨보다는 사역의 결과로서의 일들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본질적 기쁨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이 구원입니다. 주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포칼립스(계시)가 열려,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버지가 누구며, 이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어 주심이 감사하나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거듭난 제자들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왕들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았음에 복 받은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들이 누구인가를 계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기노스코).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율법의 관원이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였지만 감춰져있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지만 의미는 모른 채 행위만 강조하였습니다. 마치 나무꾼이 숲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이,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하면 그 안에서 헤매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고 헤매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들은 첫째,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야 하며,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비로소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자들입니다.

목회자 세미나

- 시 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 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군자,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지립 교회의 목회자
- 강 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 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 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http://agpgs.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7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되면 합격을 하였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7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8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7. 8. 31(목)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7. 9. 07(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7. 9. 21(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7. 8. 31(목)까지 ② 금액: 50만원

-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8. 2. 5(월)~6(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김양인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민규
총 무 목사 엄기설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